

# 수소도시 구현 · 수소 인프라 구축 협력

### 전주시-한국국토정보공사,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방편을 운영하는 등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2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창립 4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협약식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미래도시 조성에 공동으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수소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하루에 승용차 50대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의 승용 수소충전소 1기를 내년 말까지 구축하고 올 하반기에는 수소시내버스 1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수소산업 연관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LX 상생희망펀드'를 운용하기로 했으며, 디지털트윈 서비스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수소시범도시에 선정된 이후 43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2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송천동에는 전주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했다. 시는 내년까지 596대의 승용차를 보급하고 삼천동 버스회차지 인근에 수소버스충전소를 조성하는 등 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에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 국가적 사명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

며 "공사가 전주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ESG 경영 의지와 협력을 통해 친환경 수소서비스와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이 실리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할 원천기술과 인프라를 선점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2050 탄소 중립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을 구현, 행정에 적용하고 3D 버추얼 전주 기반 행정 인허가 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 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 투어 '호응'

### 전주시, 원주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0.9% 만족

코로나19 여파로 전주한옥마을 내 공연·체험 등이 축소 운영된 가운데 온라인 스탬프 투어 등 한옥마을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온라인 스탬프 투어 원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콘텐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90.9%가 전반적으로 만족해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모바일을 활용한 문자 전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문항은 체험여행 만족도, 인터넷 플랫폼 사용의 편리성, 주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정도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골목길 코스를 다니면서 한옥마을 내 골목길의 역사를 알고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으며, 문화유산 코스를 통해 풍남문, 전라감영, 풍패지관 등 전주 전통 유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즐겁게 여행했다는 평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4월 시작된 문화유산 코스는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를 위해 마련된 코스로 개설 2달 만에 841명이 참여하는 등 여행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스탬프 투어 원주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도 호응을 얻고 있다. 골목길 코스 원주자에게 지

급되는 수공예 제품의 경우 전주만의 특색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며 만족감을 표했으며, 문화유산 코스 원주자에게 제공되는 공예품 전시관 체험권이 나만의 수공예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었다.

이밖에 한옥마을 콘텐츠가 여행의 질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는 88.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플랫폼 편리성을 묻는 질문에는 72.1%, 한옥마을 콘텐츠를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87%가 '그렇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시는 동문거리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코스 및 어린이·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스탬프투어 코스를 개발하는 등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관광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험형 관광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은 "한옥마을 골목길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온라인 스탬프 투어와 한옥마을 100대 공예 체험은 비대면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발굴해 한옥마을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에코시티 국공립어린이집 2곳 추가 설치

### 전주시,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 3·8블럭 11월 개원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 지역 돌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한다.

시는 지난 30일 에코시티 데시앙 네스트 3블럭(덕진구 세병로 90)과 8블럭(덕진구 세병로 130) 아파트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이 두 아파트는 각각 598세대와 826세대로,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500세대 이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총 사업비 2억4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으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설명회를 실시해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11월에 개원을 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올 하반기 서신동 아이파크이편한세상, 우아동 우아한시티, 하가지구 영무예다움아파트 등 총 7곳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19년 16개소에서 2020년 26개소로 증가한 상황으로, 올 연말에는 38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영유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 지역의 돌봄 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낳고 기르기가 좋은 전주로 나아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공동주택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 관리비 절감 효과

### 전주시, 상반기 실시 결과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1.6% 낮게 체결 도와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원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제도'를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결과, 공사 입찰시 당초 설계금액보다 약 11.6%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공사

와 용역 발주, 물품 구매 시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과 용역 5000만 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한 뒤 관리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맞손'

### 전주시-전북대-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사장 유영목)이 손을 맞잡고 탄소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과 오명준 전북대 탄소융합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 박종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탄소산업협력단장은 지난 30일 전주시청 신성장경제국장실에서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탄소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해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형 일자리 사업의 토대를 마련코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탄소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

영 ▲취업연계 및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양성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만의 특성을 살린 탄소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컨설팅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주만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전주시의 탄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들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주형 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북대학교,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과 적극적인 상호교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